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 <구운몽> · <소현성록> ·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이수희*

— <차 례> —

- I. 서론
- II.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 1. <구운몽>의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 2. <소현성록>의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 3. <유씨삼대록>의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 III. 결론

<국문초록>

고전소설에서 결연 서사의 위기 단락을 구성하는 장애의 과정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며 주인공들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장치로 활용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장애의 종류가 바로 공주혼이다. 이 글은 공주혼 모티프와 결합하는 다양한 모티프들을 찾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주혼 모티프의 다양한 변이형들의 대표형이라 할 수 있는 <구운몽> · <소현성록> · <유씨삼대록>을 살피고자 한다.

<구운몽>에서는 그 하위 모티프로써 부모 유리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인공의 개인적 능력을 드러내고 주인공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그 가문의 창달의 단초로 기능하는 한편, <소현성록>에서는 그 하위 모티프로써 천자에 의한 명령과 투옥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예'라는 유교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며, <유씨삼대록>에서는 그 하위 모티프로써 참조와 자책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성의 수동성과 유순성의 속성을 강조

* 서강대학교

하며 거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

주제어 공주혼, 혼사 장애, <구운몽>,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I. 서론

애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의 하나이며, 인간의 삶을 토대로 하는 서사 장르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애정을 다루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옛날 옛날에 공주님과 왕자님이 살았는데…’로 시작되는 무수한 동화들은 남녀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연 서사를 그 핵 서사로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제작되는 거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그 비중의 다소를 무론하고 남녀 간의 결연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자들로서도 굴곡 없이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서사보다는 갈등의 중첩으로 인해 확장되고 지연되며 풍부해지는 서사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결연 서사의 경우, 그 위기 단락을 구성하는 장애의 과정은 극복의 과정과 맞물리면서 결연에 대한 주인공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며 주인공들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그 가운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장애의 종류가 바로 공주혼(公主婚)이다.

공주혼은 이름 그대로 천자의 누이나 딸 등 천자의 지친과의 혼인이며, 사혼(賜婚)·늑혼(勒婚)·탈혼(奪婚)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¹⁾ 공주혼이 가문 소설은 물론 군담 소설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며 일부 중국 소설의 번안 소설에서는 원작에 해당되는 전반부에 공주혼이 덧붙여져

1) 사혼·늑혼·탈혼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 평가가 존재하며 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본고에서는 공주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나타나는 것 등으로 보아, 공주혼은 고전소설에서 상당히 애호되는 모티프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모티프 개념은 서사 종류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서사 단위에 가까운데, ① 단일 인물과 자질 ② 단일 필요조건과 자질 ③ 단일 행위와 자질 ④ 그들의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결합 ⑤ 행위의 결과 ⑥ 공간적·시간적 표지와 그 자질 ⑦ 공식구 등으로 양상화할 수 있는 모티프는 그 자체로는 의미와 기능을 지니지 않지만, 다른 모티프들과 결합되어 배열될 때 의미와 기능이 발생한다.²⁾ 본고에서는 1차적으로는 공주혼을 모티프로 간주하였지만, 공주혼을 둘러싼 하위 모티프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주혼은 엄밀히 말해 이야기 유형과 모티프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것일 수 있으며 앨런 던데스가 말한 바 모티프의 통사적 결합을 지칭하는 모티프소에 가까울 수 있다.³⁾

공주혼 모티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서대석은 <하진양문록>에서 나타난 공주혼이 일부다처의 병폐를 드러내고 남성 위주로 짜여진 가족 제도를 비판하는 한편 지배 계급의 무능함과 패악함을 지적했다고 보았고,⁴⁾ 정출현은 <구운몽>의 공주혼이 17세기 예송 문제를 시사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신권 강화의 입장에서 예론을 전개했던 서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⁵⁾ 박영희 역시 <소현성록>을 다루면서 여기에 나타난 공주혼이 사대부와 군주의 대립을 반영하며 이

2) Jason, H., "Motif, Type and Genre", *FF Communications* No. 273,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2000, p.23 참조.

3) Jason, H., 앞의 글, p.22 참조.

4) 서대석, 『하진양문록』, 김진세 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pp.1006~1007.

5) 정출현, 『『구운몽』의 작품 세계와 그 이념적 기반』, 정규복 외, 『김만중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pp.182~184.

를 통해 군주권보다 강한 가부장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서인의 예 의식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였으며,⁶⁾ 또 심재숙은 공주혼 모티프의 전개 과정을 다루면서 초기 고전 소설에서의 공주혼 모티프는 왕권에 대한 신권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았다.⁷⁾ 기존의 논의를 보면 연구자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공주혼 모티프를 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 속에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공주혼은 ‘애정적 욕구를 통해 혼인한 처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항상 선인형으로 설정된다.’⁸⁾거나 ‘늑혼에 속하는 결연 서사는 철저한 악인 결연담으로 규정된다.’⁹⁾는 식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부정적 이미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같은 공주혼이라는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별 작품에 따라 공주혼의 대상의 성격과 공주혼 이후 가문 내의 상황은 다양하다. 공주혼의 대상은 주로 악하게 그려지지만 공주혼의 대상이 선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공주혼으로 인하여 가문 내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주혼 모티프의 다양한 변이형들을 왕권과 신권의 대립만으로 살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 외에도 공주혼 모티프와 결합하는 다양한 모티프들을 찾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공주혼의 대상이 악하게 그려지며 공주혼으로 인하여 가문 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텍스트로는 <소현성록>·<옥린몽>·<하진양문록> 등을,

6)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 학위 논문, 1994, p.27.

7) 심재숙, 『고전 소설에 나타난 공주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이수봉 외, 『한국가문 소설연구논총』 3, 경인문화사, 1999, pp.303~304.

8)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p.70.

9) 김종균,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 2005, p.128.

공주혼의 대상이 선하게 그려지지만 공주혼으로 인하여 가문 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텍스트로는 <유씨삼대록>·<명주기봉> 등을, 공주혼의 대상이 선하게 그려지며 공주혼으로 인하여 가문 내에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텍스트로는 <구운몽>·<한강현전>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서울대 소장본 <구운몽>과 박순호 소장본 <소현성록>과 이수봉 소장본 <유씨삼대록>으로, 이들은 공주혼 모티프의 다양한 변이형들의 대표형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1. <구운몽>의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1) <구운몽>의 서사 단계별 모티프 분석

<구운몽>은 양소유와 그를 둘러싼 여덟 여인의 결연 서사의 병렬적 나열로 구성된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공주혼은 양소유와 난양공주의 결연 서사에서 한 번 나타나는데, 양소유와 난양공주의 결연 서사의 순차 단락 및 그에서 도출되는 모티프는 다음과 같다.

01. 양소유의 부친이 신선이 되어 떠나고, 양소유가 과거 시험을 위해 경사로 오다. (부모 유리)
02. 양소유가 계교로써 정경패를 만나보고, 장원급제한 양소유와 정경패가 정혼하다. (변신-여화위남, 속임수, 급제, 결연 약속)
03. 양소유가 숙직을 하던 중 난양공주의 통소 소리를 듣고 화답하다. (꿈, 신표-통소)
04. 태후에 의해 양소유가 난양공주의 부마로 간택되다. (부마 간택)
05. 양소유가 정혼하였음을 구실로 완강히 거절하다가 투옥되다. (결연 지

연, 상소, 투옥)

- 06. 변란을 평정하기 위해 나간 양소유가 전공을 세우다. (군담, 결연, 꿈)
- 07. 난양공주가 정경패의 재모를 확인하고, 태후가 정경채를 양녀로 삼아 영양공주로 책봉하다. (설득, 변신, 지인지감, 설득, 변신)
- 08. 정가에서 정경채의 죽음을 가장하고, 양소유는 난양공주와 영양공주를 정실로 맞이하고, 그 시녀 진채봉과 기춘운을 첩으로 맞이하다. (거짓 죽음, 속임수, 결연)
- 09. 양소유가 정경채를 그리워하여 병이 나자, 결국 정경채가 살아 있음과 그녀가 곧 영양공주임을 밝히게 되다. (상사병)
- 10. 양소유는 노모를 장안으로 데려오고, 노모의 회갑연에 계섬월과 적경홍이 나타나 양소유의 첩이 되고, 낙유원 사냥 모임에 심요연과 백능파가 나타나 양소유의 첩이 되다. (연회, 결연)
- 11. 양소유와 2처 6첩이 모두 화락하게 지내다.

공주혼 모티프와 관련된 서사 단계는, 공주혼의 원인·공주혼의 과정·공주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① 공주혼의 원인

양소유와 난양공주의 결연은 난양공주의 탄생 이전 태후의 꿈을 통해 천정연으로 설정된 것으로 난양공주의 통소 소리를 듣고 양소유가 화답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으며(단락3), 그들의 결연에는 난양공주의 의사가 아닌 천자와 태후의 의사가 주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단락4).

② 공주혼의 과정

부마 간택 직후 양소유는 정경패와의 정혼을 들어 완강히 거절하다가 투옥되는데(단락5), 변란으로 인하여 그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는다(단락6). 그리고 그 사이 난양공주는, 정경패를 다른 가문으로 시집보내려 하거

나 정경패를 첩으로 취하게끔 하려는 태후를 예가 아님을 들어 설득하고 미복을 하고 정경패를 만나 그 재모를 확인하고는 결국 자신과 동렬의 영양공주에 책봉하게끔 함으로써(단락7), 자신의 지체를 낮추어 양소유의 2부인으로 하가한다(단락8).

③ 공주혼 이후

공주혼의 과정 자체가 난양공주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던 만큼, 공주혼 이후 양소유가 그 이전에 결연했던 여성들을 첩으로 맞이하는 과정(단락10)에서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며, 양소유가 승상 겸 위국공으로 봉해지고 취미궁을 하사받고 끝내 위왕으로 봉해지면서 온갖 복록을 누리는 동안(단락11) 역시 아무런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

2) <구운몽>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구운몽>에서 두드러지는 모티프는 단락1의 부모 유리 모티프이다. 양소유는 한미한 가문의 독자로 어린 시절 부친과 헤어졌고 과거를 이유로 모친과도 유리되어 있어, 그의 서사에 부자 관계 혹은 부를 대신하는 모자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편모슬하에서 성장한 양소유의 목표는 입신양명인데, 그 목표를 완수하도록 조력자로부터 얻은 도움은 학문이나 무예가 아니라 거문고와 통소의 연주 능력으로, 양소유는 이 거문고와 통소를 통해 정경패 및 난양공주와 결연을 맺게 된다.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변란을 평정하는 등의 개인적 능력에 더해 결연을 통한 관계 맺음이 양소유의 입신양명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난양공주와의 결연을 통해 양소유는 황실과 인척이 됨으로써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황족인 월왕보다도 더 뛰어난 자신의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구운몽>에서 나타나는 공주혼 모티프는 양소유의 일시적인

투옥을 불러올 만큼 심각했지만 난양공주의 개입과 양보로 원만하게 처리되었고 혼인 이후로도 아무런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

<구운몽>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한강현전>에서도 유복자로 태어난 한강현과 초국 공주와의 공주혼 모티프가 나타나는데, 한강현이 석소저와의 정혼을 이유로 거부하자 초왕이 공주를 다른 곳으로 하가시키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초국 공주가 자신이 지체를 낮추어 2부인으로 하가할 것을 청하고 석소저와 화락하게 지낸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전책류 소설이나 기봉류 소설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조웅전>에서는 간신의 모략으로 부친을 잃은 조웅은 공주와의 결연을 통해 송 황실을 재건할 수 있는 조력자를 얻게 되고 자신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고 마침내 몰락했던 가문을 복권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공주혼을 통해 조웅과 결연한 위국 공주 역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조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체를 낮추어 1부인인 장소저와 화락하게 지낸다. 또한 <오선기봉>에서 부모를 잃고 떠돌던 황태율은 공주와의 결연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마침내 잃었던 부모를 찾아 일가를 이룬다. 이때도 공주혼을 통해 황태율과 결연한 계남공주 역시 자신의 지체를 낮추어 2부인을 자처하고 1부인인 현소저 및 황태율의 다른 첩들과 화락하게 지낸다.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혹 있더라도 모종의 이유로 잠시 유리되어 있는 <구운몽>류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 스스로 몰락한 가문을 복권시키거나 한미한 가문을 창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일직선으로 달려간다. 이때 공주혼 모티프가 부부간의 성대결이나 지위 다툼으로 그리고 처첩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서사가 산만해지고 목표 의식이 흐릿해질 우려가 생긴다. 그러기에 이 경우 공주혼 모티프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개인적 능력을 드러내고 주인공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그 가문의 창달의 단초로 기능한다. 그러기 위해 공주혼으로 인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천자와 신하의 대립을 여성의 양보로 최소화하고 그 이후 가문 내에서도 처첩 간의 갈등 없음을 상징함으로써, 주인공의 능력과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2. <소현성록>의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1) <소현성록>의 서사 단계별 모티프 분석

<소현성록>은 소현성과 그 자녀대에 걸친 행적을 다룬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공주혼은 소현성의 3자인 소운성의 결연 서사에서 한 번 나타나는데, 그 결연 서사의 순차 단락 및 그에서 도출되는 모티프는 다음과 같다.

01. 승상 소현성의 8자 4녀 중 3자로 소운성이 태어나다.
02. 소운성이 형소저와 혼인하다. (결연)
03. 소운성이 장원급제하고, 창기를 불러 희롱하다가 소현성에게 태장을 맞다. (급제, 창기 희롱)
04. 명현공주가 입궐한 소운성을 보고 반하여 천자에게 자신과 운성의 혼인을 청하며 조강을 폐하라고 하다. (꿈, 상소, 조강 폐위)
05. 소운성이 황명과 부명으로 부마 간택에 참여하고, 명현공주가 운성에게 방울을 던져 운성이 부마로 간택되다. (명령, 부마 간택-방울 던지기)
06. 소현성이 운성이 이미 혼인하였음을 들어 거절하다가 투옥되다. (명령, 상소, 투옥)
07. 소운성이 형소저와 절혼하고 명현공주와 혼인하다. (결연 지연, 결연, 평가)
08. 소운성이 형소저를 그리워하며 교배 후로 명현궁에 가지 않다. (평가, 박대)
09. 명현공주가 제 부인들의 모임에서 결례를 범하고, 태부인(소현성의 모)

- 과 동렬에 앓다. (시가 무시, 평가, 시가 무시)
10. 청주자사가 말과 창첩을 보내자, 명현공주가 창첩의 발을 꺾고 코와 귀를 베어 하옥시키다. (창기 희롱, 책망, 형신, 투옥)
 11. 천자가 소운성이 명현공주와 동침하지 않음을 대책하고, 운성이 명현공주의 무례함을 간하다. (책망, 명령, 상소)
 12. 소운성이 형가에 가서 형소저를 몰래 만나고 상사병에 걸리다. (조우, 상사병)
 13. 형소저가 환가하다. (결연)
 14. 명현공주가 형소저를 해하고자 명현궁에 거하게 하다. (계략)
 15. 소운성이 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설득, 평가)
 16. 명현공주가 형소저를 익사시키려다가 실패하다. (살해 미수)
 17. 명현공주가 소운성이 천자를 비방했다 하여 상소하고 소운성이 하옥되다. (상소, 투옥)
 18. 천자가 소운성에게 사형을 내리려 하자, 형소저가 혈서로 상소하다. (상소)
 19. 양보모(명현공주의 보모)가 형소저를 괴롭혀 친정으로 출거시키고, 형가에서는 형소저의 죽음을 가장하다. (출거, 피화-부고)
 20. 소운성이 상사병에 걸리고, 명현공주가 무당과 결탁하여 소운성을 죽이려 하다. (상사병, 저주, 살해 미수)
 21. 소운현이 어사로서 순무하던 중 형소저를 찾고 운부인(소현성의 의매)의 집에 머물게 하자, 소운성이 그녀를 찾아가다. (조우, 계략)
 22. 명현공주가 칼로 운성을 죽이려 하다. (살해 미수)
 23. 형소저의 일을 안 명현공주가 천자에게 이 일을 상소하다. (상소)
 24. 소현성과 소운성이 하옥되고 소운현이 파직되다. (투옥, 파직)
 25. 명현공주가 태부인과 석부인을 욕하다. (시가 무시)
 26. 천자가 팔왕을 보내 명현공주를 용서할 것을 설득하지만 실패하고, 태부인의 만류로 소현성이 공주를 풀어준다. (설득)
 26. 명현공주가 병으로 사망하다. (죽음)

이러한 서사 단계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주혼의 원인·공주혼의 과정·공주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① 공주혼의 원인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결혼은 명현공주의 애정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소운성에게 첫눈에 반한 그녀가 스스로의 혼사를 주혼한 것인데(단락4), 이는 형소저의 꿈을 통해 “상의 익”으로 계시된 바 있기도 하다(단락4).

② 공주혼의 과정

소운성이 이미 혼인하였음을 들어 천자가 그 불가함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현공주는 천자가 신하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조강을 폐하라고 이야기하고(단락4), 그 결과 황명으로 소운성은 부마 간택에 참여하게 되는데, 소가의 형제들이 공주 스스로 부마를 간택하는 일이에 어긋남을 지적한 것과 같이 부마 간택은 방울 던지기라는 극도로 과장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단락5). 또한 자신의 아들이 이미 혼인하였음을 들어 부마 간택의 불가함을 상소하는 소현성을 옥에 가두고(단락6) 끝내 조강을 폐위함으로써(단락7)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결혼은 황실의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인 권력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주혼 이후

소운성의 애정의 편중(단락8·12·20)과 소가 계 구성원들의 부정적 평가(단락8·9)로 인해 명현공주는 형소저와 나아가 소운성에 대한 모해를 확책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명현공주의 태생적 자질에 기인한다. 천자에 대한 소운성의 평가(단락15)에서 드러나듯, 명현공주는 공주로서 최고의 문벌과 권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조카이자 정당한

황위 계승자를 살해한 부친(태조)과 사사로이 사통하여 방울을 매개로 혼인한 모친(부황후)을 가졌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명현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용모화월갓고 괴질이 식식하여 무심이 보견디 금지옥엽이 범인과 다르다 할 거시로디 넘나고 투악하며 교만방조하여 취함직흔 고지 업”¹⁰⁾은 존재, 소가에 하가했음에도 자신이 태생적으로 지닌 가문 외적 지위를 고수하여 가문 내로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존재, “석현다리와 낭문관의 죽기 너희 등의 아비 못쓸 조식을 나혀 너의 일성을 그릇 믿들고 종시 거짓 말노 군부의 속여는요.”¹¹⁾라며 시조모와 시모를 저주하는 패륜을 범하는 존재 등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명현공주의 자질은 사건을 추동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갈등이 전개되는 동안, 최고의 문벌과 권력을 지닌 명현공주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효한 방법은 천자에게 상소하는 것이다(단락11·17·23). 그 외에도 명현공주는 남편이 친압한 창첩을 형신하고 투옥하거나(단락10) 형소저와 소운성을 살해하고자 하거나(단락16·20·22) 소운성과 시가를 저주하고 모욕한다(단락20·25).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소가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명현공주나 천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비해 일견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황명으로 절혼당하고 황명으로 환가하고 소운현의 계략으로 소운성과 조우하며 명현공주의 사후에야 비로소 소운성과 완전한 결연을 이루게 되는 형소저의 의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형소저의 의사 표명은 주로 가문의 평안을 위해 명현공주를 후대할 것을 설득하거나(단락15) 가문의 안위를 위해 혈서로 상소할 때(단락18) 드러나며, 스스로를 주혼하기까지

10) <소현성록>, p.495.

11) <소현성록>, p.643.

했던 명현공주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 명현공주의 죽음을 통해서야 ‘해결’되는데, 이는 공주혼으로 인한 갈등이 그만큼 극심했음을 드러낸다.

2) <소현성록>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소현성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티프는,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결연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천자에 의한 명령과 투옥 모티프이다. 이는 그 행위자가 천자나 명현공주로서 행위자가 객체에 비해 상위에 있으며 ‘권력’을 매개로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으로 행해진다는 면에서 유사한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운성의 애정의 편중(단락8·12·20)과 소가 제 구성원들의 부정적 평가(단락8·9)로 인해 명현공주가 형소저와 나아가 소운성에 대한 모해를 획책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천자에게 상소할 때(단락11·17·23), 천자가 신하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천자는 소운성에게 부마 간택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단락5) 조강을 폐하고 명현공주와 혼인할 것을 명령하고(단락6) 명현공주와 동침할 것을 명령하며(단락11) 자신의 뜻에 반할 경우 투옥하거나(단락6·17·24) 죽이려 한다(단락17).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조선조 왕실의 부마 간택에 대한 사대부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에 공주가 하가할 때는 금혼령을 내려 동자봉단을 하여 세 번의 간택 과정을 거쳐 최종 한 사람을 부마로 간택하였는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공주혼에 대한 반발은 상당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율곡(栗谷)이 우리나라의 간택의 잘못된 점을 이미 간절하게 말하였으나 선조가 그 말을 끝내 좇지 아니하였다. 부마(駙馬)를 간택한다는 것도 이미

대단히 불가하거나와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예에 어긋나는 일이 많다. 왕희(王姬)의 하가(下嫁)와 제을(帝乙)의 귀매(歸妹)는 스스로 정례(正禮)가 있는데, 여자 한 사람을 위해 국내의 사내아이를 모두 모아 놓고 선택하니 예의 근본 정신에 극히 어긋나는 일이다. 처음에 약간 명을 선택하고, 두번째는 그 중에서 3명을 선택하고, 다시 날을 받아 그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며, 이것을 삼간택(三揀擇)이라 하는데, 예의의 나라에서 매우 불가한 일이다.¹²⁾

이에 더하여 부마의 출사 금지·왕실의 개입으로 인해 긴장되는 부부 관계¹³⁾·의빈 재취 금지¹⁴⁾ 등은 공주혼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의 갈등을 빚었는데,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을 둘러싼 황실의 개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소현성록>에서 명현공주로 대변되는 황권과 소운성과 소가 구성원들로 대변되는 신권의 갈등은 군주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주혼은 그것이 배태한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맥락에서 수용되고 때로는 선호되었는데, 그것은 의빈인 부마가 합법적·비합법적으로 막대한 부를 획득할 수 있으며 가문 전체로 보아 왕실과의 혼맥 형성으로 인해 권력을 향유하는 데 참여하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경제적¹⁵⁾·정치적¹⁶⁾ 실리에 기인한다. 그리고 고전소설에서의 공주혼 모

12) 이궁익, 『국역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1967, p.497.

13) 예컨대, 명종의 동복 누이 의혜공주의 부마 청원위 한경록이 기생 옥생향을 총애하자 국왕이 진히 전교를 내려 옥생향을 형조에서 추찰하게 하고 유배 보낸 기록이 있다.(『명종실록』 13년 6월 27일조와 7월 21일조.)

14) 예컨대, 공주가 후사 없이 죽어 부마가 사족녀를 재취하였을 경우 그 사족녀는 첩으로, 그 소생은 첩자로 논정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없게끔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세조실록』 6년 5월 19일조, 『성종실록』 5년 2월 1일조, 『성종실록』 13년 5월 2일조, 『숙종실록』 7년 7월 21일조 등.)

티프의 반복된 출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맥락에서 공주혼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고전소설 특히 <소현성록>의 창작·향유 계층¹⁷⁾은 공주혼을 둘러싼 군주와 신하의 첨예한 대립에서 신하가 절대 왕권에 비해 우위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예’라는 유교적 윤리 규범이다. 그러기에 조카이자 정당한 황위 계승자를 살해하는 패륜을 저질렀던 천자는 소운성에게 비판받으며, 명현공주가 시조모와 시모를 욕했을 때 천자는 “엇지 공주 그 항의 잇서 방즈회 스아비와 스어미를 슈욕하며 지아비를 도모함이 그 죄 엇지 경허리요. … 경은 임으로 처지하라.”¹⁸⁾라며 소현성에게 명현공주를 私刑시킬 것을 허락함으로써, 천자의

15) 조선 후기 공주에게 지급되던 궁방전은 500결(『현종실록』 3년 9월 5일조)~400결(『현종실록』 4년 9월 18일조)이었는데, 실제로는 850결까지 지급된 사례도 보인다.(『순조실록』 22년 9월 5일조) 또한 선조 조에 시장(柴場)·염분(鹽盆)·어전(漁箭)이 지급된 이래 궁방전이 정립되면서 시장·염분·어전을 사사로이 세우는 것이 원칙상 금지되기는 하였으나 선대의 일기기에 혁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묵인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으며, 부마의 경우 사행에 동행하여 사사로이 무역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성종실록』 21년 9월 3일조와 『중종실록』 36년 11월 5일조 등.)

16) 정권을 장악한 서인계 공신들이 ‘無失國婚’을 약속한 이후 나타나는 공주혼을 보면, 반남 박씨가 3회, 신안동 김씨와 연일 정씨가 2회에 걸쳐 부마를, 부마를 배출한 신안동 김씨가 순조·헌종·철종의 3대에 걸쳐 왕비를, 광주 김씨가 숙종비를, 청송 심씨는 경종비를, 경주 김씨는 영조비를, 풍산 홍씨가 장조비(장헌세자빈)를, 남양 홍씨가 현종비를 배출하고 있어, 중첩된 국혼을 통한 가문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조 조에 부마를 배출한 일부 가문이 인조 조 이래 경종 조까지 배출했던 당상관의 수보다 영·정조 조에 배출한 당상관의 수가 2배~7배에 달한다는 것은, 부마의 배출과 가문의 번성이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한 가지 방증이 된다.

17) <소현성록>의 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소현성록>을 필사했다고 하는 용인 이씨나 모친이 필사한 <소현성록>을 가묘에 안치한 옥소 권섭은 모두 서인의 일원으로, 특히 서인은 ‘천하동례’라는 기치 아래 왕권과 신권의 대립에서 ‘예’를 강조한 바 있다.

18) <소현성록>, p.645.

권력으로도 자신의 딸인 명현공주를 구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천자의 권력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유교적 윤리 규범에 대한 역설이다.

3. <유씨삼대록>의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1) <유씨삼대록>의 서사 단계별 모티프 분석

<유씨삼대록>은 유정경과 그 아들 유연·유홍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유효공선행록>의 연작으로, 유연의 아들 유우성과 그 자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엮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공주혼은 유우성의 차자 유세형의 결연 서사에서 한 번 나타나는데, 그 결연 서사의 순차 단락은 다음과 같다.

01. 승상 유우성의 5자 3녀 중 차자로 유세형이 태어나다.
02. 유세형이 급제하여 장소저와 정혼하고, 장가를 찾았다가 장소저를 직접 보고 반하다. (결연 약속)
03. 천자가 진양공주의 부마로 유세형을 간택하고 태후가 기뻐하여 혼인을 명하자, 세형은 반발하다. (부마 간택, 상소)
04. 유세형과 진양공주가 혼인하다. (평가, 책망, 결연 지연, 결연)
05. 장소저는 수절을 선언하고, 유세형이 혼인 후 장소저를 잊지 못해 진양공주를 박대하는 한편 상사병에 걸리다. (수절, 상사병, 박대)
06. 진양공주가 천자에게 청하여 유세형이 장소저를 부실로 맞다. (설득, 결연, 평가)
07. 장소저가 진양공주를 투기하여 유세형에게 공주를 참소하다. (평가, 참소)
08. 유세형이 술에 취해 의관을 불사르며 진양공주를 험담하고 궁인을 결박하다. (수욕, 결박)
09. 진양공주가 석고대죄를 청하고 이부인이 세형과 장소저를 대책하다. (자책, 책망)

10. 장소저가 유세형에게 진양공주를 참소하다. (참소)
11.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구타하자 유우성이 세형을 대장하고 장소저를 축출하다. (폭행, 책망, 출거)
12. 진양공주가 궁으로 돌아가다. (피화-환궁)
13. 유세기와외의 대화를 통해 유세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다. (설득)
14. 왜구의 침입에서 공을 세우고 진왕에 봉해진 후,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생각하다. (군담, 예언)
15. 유세형의 쓸쓸함을 위로하고자 유우성이 장소저를 유가로 돌아오게 하다. (결연)
16.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그리워하지만 공주가 세형의 편벽을 이유로 돌아오지 않자, 세형이 계략으로 공주를 출궁시키다. (상사병, 계교)
17. 진양공주가 유가로 돌아오고, 혼인 후 처음으로 합방하다. (결연)
18. 장소저가 진양공주를 투기하여 독살하려 하다. (예언, 살해 미수)
19. 천자가 장소저를 죽이고자 하다가 공주의 만류로 공주의 시첩이 되어 사면되고, 장소저가 시비 채홍을 죽이다. (설득, 살해)
20. 진양공주가 장소저를 지성으로 대하자 장소저가 개과하고, 진국부인에 봉해지다. (설득, 개과)
21. 진양공주가 득남하고, 유가가 화락해지다.

이러한 서사 단계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주혼의 원인·공주혼의 과정·공주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① 공주혼의 원인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결연에는 진양공주의 의사가 아닌 천자와 태후의 의사가 주효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우성이 유세형이 정혼하였음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는 하였으나 공주혼 자체에 대한 유가 전체의 거부감은 표출되지 않는다(단락3). 장소저에 대한 애정적 욕구 때문에 유세형 개인은

공주혼을 완강히 거부하지만, 장소저를 혼전에 만났던 일로 인하여 도리어 부친으로부터 대책을 사게 되고 이러한 비례는 공주혼의 또 다른 빌미가 된다(단락4).

② 공주혼의 과정

황명과 부명으로 인해 유세형은 장소저와 파혼하고 진양공주와 혼인한다(단락4). 유세형을 제외한 유가의 구성원들은 유세형의 편벽됨을 근심할 뿐 공주혼에 대한 거부감은 표출하지 않기에 공주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없지만, 공주혼으로 인하여 결연이 지연된 장소저가 “니 이제 지상문미의 천금지란으로 뉴심으로 빅연덕승을 미즈미 마음이 족하고 뜻이 즐거울 거시여늘 천조의 덕후무로 혼 부마를 엇지 굴히디 못흐야 곱타여 나의 가랑을 아샤 위세로써 저의 아리 되여 도로혀 더의 덕을 외우고 공을 송흐야 혼업산 영광을 남의게 도라보니 구구혼 자취 일신의 모다 우주 스이는 양망이느 흐려니와 나의 공주와 간격 이시문 텃지도곤 니도 흐니 나의 지피 더의게 여러 층 써러디미 업고 문져 빙폐흔 비 속절업시 허시 되여 엇지 늬니 천디를 감심홀 줄 알니오.”¹⁹⁾라는 뜻을 품게 되면서, 이후의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다(단락5).

③ 공주혼 이후

수절을 선언한 장소저의 처지를 동정하는 한편 상사병에 걸린 유세형을 달래기 위한 방책으로(단락5) 진양공주는 천자와 태후를 설득하여 장소저를 유세형의 부실로 맞이하고(단락6), 황실의 개입으로 인한 결연 지연(단락4)·신분적 열등감과 아울러 재상가의 딸이면서도 부실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조차 자신의 의사보다는 진양공주의 의사가 주효하게 작용

19) <유씨삼대록>, p.213.

했다는 점(단락6)·시부모의 편중된 애정(단락6) 등으로 인해 장소저는 진양공주에 대한 모해를 획책하게 된다.

장소저는 끊임없이 유세형에게 진양공주를 참소하고(단락7·10), 그 참소를 믿은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박대하고 험담하며 심지어 구타한다(단락8·11). 그런데 진양공주가 환궁한 후 유세형이 갑작스레 애정의 대상을 전도함으로써(단락13·14·15·16·17), 장소저는 다시금 진양공주에 대한 모해를 획책하게 되고 이는 진양공주에 대한 살해 미수(단락18)와 시비 살해(단락19)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진양공주는 스스로를 책망하며(단락8·9) 자신을 참소하였다는 이유로 장소저가 출거되자(단락11) 자신 역시 그 책임을 지고 궁으로 돌아가고(단락12), 예언을 통해 위험을 피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다가(단락18) 사실이 밝혀지자 도리어 장소저를 용서하게끔 천자를 설득하고(단락19) 장소저를 후대하도록 유세형을 설득하는가 하면 장소저를 지성으로 대하여 그녀가 개과할 수 있게끔 한다(단락20).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진양공주의 오라비인 천자는 유세형에게 진양공주와의 혼인을 명했을 때와 진양공주가 독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를 제외하면 유가 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며, 태후 역시 진양공주가 주선하여 장소저를 부실로 맞으려는 것을 만류한 것을 제외하면 유가 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 진양공주의 지성에 의하여 장소저가 개과하고 가문 내부로 재편입되면서 해결된다.

2) <유씨삼대록>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유씨삼대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티프는, 장소저의 참소와 진양공주의 자책 모티프이다. 이는 '언어'와 관련되며, 그 행위자가 객체

에 비해 아래에 있거나 수평적이라는 데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결연 지연과 문벌의 차이 그리고 시부모의 차별 등으로 인해 장소저는 진양공주를 투기하여 끊임없이 참소하고(단락7·10), 장소저가 자신을 참소함으로써 유세형이 자신을 험담하고 구타할 때 진양공주는 스스로를 책망하며(단락8·9) 자신을 참소하였다는 이유로 장소저가 출거되자(단락11) 자신 역시 그 책임을 지고 궁으로 돌아간다(단락12).

서사 전반부의 사건을 추동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티프는 장소저를 행위자로 하는 참소 모티프이며, 이는 쟁총 갈등의 한 방법이 된다. 여성이 남편의 가문에 편입되어 안정된 위치를 얻으려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벌이는 투쟁인 쟁총 갈등에서 남성 주인공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갖은 계락을 꾸며 여주인공을 모해하고 때로는 가문을 위태롭게 까지 만드는 반동인물의 행동은 처벌로 귀결되는데, 독살 음모를 발설한 시비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장소저의 계략은 그녀 자신을 非人化하고 그 결과는 폐출로 이어진다. 여성의 투기는 폐출의 이유가 되며, 어찌 보면 부부 간의 갈등의 원인은 여성의 不德에 달려 있다는 이러한 논리는, 당대의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남편이 첩을 두는 것은, 부인 자신이 고질이 있어 집안일을 손수 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래도록 아들이 없어 제사를 받들 수 없는 데서 연유한다. 이럴 경우, 남편이 설령 첩을 두고자 하지 않더라도 옛날 어진 아내들은 반드시 그 남편을 권하여 널리 현숙한 사람을 구해서 그녀를 잘 가르쳐 자신의 노고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어느 겨를에 질투했겠는가? 설사 자신이 병도 없고 아들도 두었지만, 남편이 여색을 탐해서 첩을 많이 두어 성행(性行)을 상실하고 그녀들에 미혹되어 부모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한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정성어린 말로 간곡히 만류하고 따라서 호느껴 울되, 그 만류하는 처사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에서 그런 것이요, 질투에서 그

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인다면, 어찌 남편이 감오(感悟)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자신의 성품이 편협하여 독기를 부림으로써 결국 부부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해치는 일을 못할 것 없이 하기까지 하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²⁰⁾

이러한 주장은 투기하는 여성 곧 남편의 가문에서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여성의 不德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한다.

한편 경쟁자에 대해 결코 동일한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해 본 적이 없으며, 끝내 경쟁자를 덕으로 교화했던 진양공주는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된다. 혼인 초 진양공주는 자신의 사치스런 옷차림을 유우성이 타하자 “배운 일이 없기로” 그렇게 되었다고 반성하며 즉시 옷차림을 바꾸고 황가의 법과 사가의 법이 다르므로 시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말 것을 권하는 궁인들의 말에 “너즈 삼중지법은 즈턴즈지어서인히 일정한 비라. 엇지 황가 세덕으로 성인의 법도를 어기리오. 니 임이 몸이 너즈 되어 사람을 조츠스니 구가의 뜻을 순중호야 놓호므로써 더욱 가도를 삼가 하고 조심코자 하나니.”²¹⁾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유세형이 자신을 헐담하고 궁인을 결박할 때 “화란금의를 벗고 계호에 느려ᄃ 써적을 잇그러 디죄호고 시녀로 호야금 부마의 스회호되 첩이 심궁에 싱금호미 부귀에 혼미호야 놓흔 학문을 아지 못호기로 부마의 ᄃ정을 어즈리고 니쥬호는 덕이 업실 썬 아니르 궁관의 무례함이 이렇듯호니 금일 칙은 즈당 감수라. 스스로 죄를 당호를 윈호노이다.”²²⁾라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녀가 나타난 수동성과 유순성의 속성은 서술자에 의해 “임사의 버금”으로 칭송됨으로써 선한 것이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게 되며, 따라서 이런 속성은 더욱

20)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 권6, 민족문화추진회, 1978, pp.115~116.

21) <유씨삼대록>, p.128.

22) <유씨삼대록>, pp.240~241.

강화된다. 윤리 규범은 현상 유지를 위해 이를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신념 체계를 일컬을 수도 있다.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존여비라는 윤리 규범적 근거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윤리 규범은 사회적 보상과 제재, 교육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내재화된다. 남성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여성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구는 외부적 강요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선악이라는 윤리적 형태로 혹은 가치관의 차원으로 교묘히 변형되어, 여성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²³⁾

애정적 욕구를 통해 혼인한 장소저가 오히려 악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진양공주의 결연 서사가 오히려 긍정되었다는 점에서, 공주혼 모티프에서 사혼 또는 늑혼을 통해 결연한 여성과 애정을 통해 결연한 여성 그 어느 쪽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고, 또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애정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세형의 청에 장소저가 응하여 규방에서 나옴으로 혼전에 서로 만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애정이 싹트게 된 것에 대해 이때 유세형과 장소저의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유세형은 유우성에게 매를 맞고 유우성은 장소저가 유세형의 부실이 된 후에도 그녀를 못마땅해한다. 곧 우연이나 남성의 일방적 계교가 아닌 쌍방 간의 합의의 결과로 혼전의 남녀가 대면하고 애정을 확인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연으로 간주되고 부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의사 표명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여성의 발화를 차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²⁴⁾

23) 모리스 고들리에 역시 지배의 강력한 힘은 반드시 폭력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배에 대한 피지배층의 동의로부터 우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M. Godelier, 김영범 역, 『권력과 언어』, 『언어사회학서설』, 까치, 1986, pp.165~169 참조.)

24) Geyer-Ryan, *Fables of Desire: Studies in the Ethics of Art and Gender*, polity, 1994, p.74.

Ⅲ. 결론

본고에서는 <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을 대상으로 하여, 고전소설에서 광범위하게 애호되던 공주혼 모티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운몽>에서는 그 하위 모티프로서 부모 유리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인공의 개인적 능력을 드러내고 주인공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그 가문의 창달의 단초로 기능하는 한편, <소현성록>에서는 그 하위 모티프로서 천자에 의한 명령과 투옥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예'라는 유교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며, <유씨삼대록>에서는 그 하위 모티프로서 참소와 자책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성의 수동성과 유순성의 속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에 더해 작품의 길이 역시 공주혼 모티프와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공주혼을 둘러싼 갈등이 난양공주의 양보로 쉽게 해소되고 공주혼 이후로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채 화려한 가문 속에서 양소유가 누리는 부귀를 그리고 있는 <구운몽>은 서울대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2쪽에 불과하다. <구운몽> 역시 초기 장편 소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남정기> 등의 중편 소설과 <창선감의록>·<소현성록> 등의 장편 소설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데 반해²⁵⁾, <소현성록>은 박순호 소장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99쪽, <유씨삼대록>은 이수봉 소장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52쪽에 달하고 있어, 공주혼 이후 가문 내에 파란이 일어나는 소설들이 <구운몽>보다 2~3배 이상 길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물론 삼대록 소설인 다른 두 작품은 일대기 소설인 <구운몽>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망라하기에 <구운몽>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양소유를 중심으로 결집되었던 서사가 복수 주인공으로 분산되어 각

25) 정길수, 『한국 고전 장편 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pp.16-19 참조.

각의 개별적 서사가 구슬 꿰기의 방식과 스토리 병렬 혹은 삽입의 방식으로 전개되기에 서사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다.²⁶⁾ 하지만 삼대륙 소설의 핵심적 위치에 놓인 것은 2대의 구성원으로, 공주혼이 일어나는 남성이 대부분 2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의 서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주혼과 관련된 갈등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유씨삼대륙>에서는 공주혼 모티프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 하는데, 가장 긴 <유씨삼대륙>의 경우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결연 서사에만 375쪽을 할애하는 등 <구운몽>과 분량상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편폭이 길어졌다는 것은 곧 공주혼을 둘러싼 갈등과 공주혼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다룰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현성록>·<유씨삼대륙> 등의 장편 소설에서는 공주혼→투기→모해→징치로 이어지는 서사 단락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구운몽> 외에도 공주혼 이후 처첩 간에 아무런 갈등 없이 화락하게 지내는 여타의 소설들이 대부분 지극히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더해 독자층 역시 공주혼 모티프와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구운몽>이 김만중의 모친을 위해 창작되었다는 것과 <소현성록>이 권섭의 모친 용인 이씨에 의해 필사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 소설이 1차적으로 겨냥한 독자는 사대부가의 여성들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 창작되었으며 공주혼 모티프가 나타나는 고전소설에 있어

26) '구슬 꿰기'는 단편의 결합을 통해 분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단일한 주인공을 내세우고 결말부의 단일한 목표를 향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서사 전개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또한 사실상 개별적 단편이라 볼 수 있는 독립적 서사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로 엮히는 '스토리 병렬'의 방식을 취할 수도, 혹은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여타의 개별 서사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삽입'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정길수, 앞의 책, pp.235-311 참조.)

서, 서로 다른 독자층과 그 기대 지평을 지니고 있는 전책류와 녹책류는 공주혼 모티프에 있어서도 선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곧, 녹책류로 분류되는 장편 소설로 사대부 여성을 1차적 독자로 두고 상층 그리고 서인 계의 창작 의식 하에 창작되었음에도 공주혼 이후의 갈등을 배제한 <구운몽>은, 공주혼 이후의 갈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운몽>은 <조운전>을 위시한 일련의 군담 소설에 가깝다. 이는 곧 18세기 후반 이후 실세한 남인 계열에 의해 창작된 군담 소설에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지녔던 개인적 능력과 가정 내의 권위 그리고 그를 발판으로 삼은 가문 창달의 의지가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장편 가문 소설의 남성 독자들이 선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가문의 유지와 계승 및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에게 유교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사이 장편 가문 소설의 여성 독자들이 (현재에도 꾸준히 각종 트렌디 드라마와 로맨스 소설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삼각관계에 몰입하며 여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데 반해, 장편 가문 소설의 독자에 비해 하층에 속하는 군담 소설의 독자 나아가 전책류 소설의 독자들은 영웅적 남주인공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독자와 공유했을) 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 상층 계급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몰입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대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1대의 이야기에 국한된 서사와 2대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서사에 나타나는 공주혼 모티프의 차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 공주혼 모티프의 의미를 보다 정치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서울대 소장본 <구운몽>

박순호 소장본 <소현성록>

이수봉 소장본 <유씨삼대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명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민창문화사, 1994

이궁익, 『국역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1967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78

2. 논저

김종균,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 2005, p.128.

김현주, 「가문소설 투기 대목의 화소결합방식과 유형화」, 『고소설연구』 26집, 2008, pp.119~147.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 학위 논문, 1994, p.27.

서대석, 「하진양문록」, 김진세 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pp.1006~1007.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p.70.

심재숙, 「고전 소설에 나타난 늑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3, 경인문화사, 1999, pp.303~304.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p.1~353.

정길수, 『한국 고전 장편 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pp.16~19, pp.235~311.

정출현, 『구운몽』의 작품 세계와 그 이념적 기반, 정규복 외, 『김만중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pp.182~184.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5, pp.1~227.

Geyer-Ryan, *Fables of Desire: Studies in the Ethics of Art and Gender*, polity, 1994, p.74.

Godelier, M., 김영범 역, 「권력과 언어」, 『언어사회학서설』, 까치, 1986, pp.165~169.

Jason, H., “Motif, Type and Genre”, *FF Communications* No. 273,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2000, pp.22~23.

ABSTRACT

The Motif Combining Usage and Significance of Princess Marriage Motif

Lee, Soo-Hee

Princess marriage is a frequent marriage obstacle in classic novel. This paper found the motif combining usage of princess marriage and discusses significance of princess marriage.

In <Gu Un Mong>, seperation with parents motif which dominantly combines to princess marriage motif shows individual ability of hero and functions family growth. In <So Hyun Sung Rok>, command and imprisonment from king motif which dominantly combines to princess marriage motif shows conflicts between royal authority and subject right and emphasize Confucianism - decorum. And In <Yussi Samdaerok>, false charge and reproaching oneself motif which dominantly combines to princess marriage motif emphasize passiveness and submission of woman and protect of patriarch's ideology.

Key Words Princess Marriage, marriage obstacle, <Gu Un Mong>, <So Hyun Sung Rok>, <Yussi Samdaerok>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